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10.2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'테러 목적 암호화폐' 단속강화 法개정 추진
 - 10.14 英 의회는 테러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가능한 암호화폐의 압류·동결·몰수에 '필요한 모든 권한'을 경찰 등 法집행기관에 부여해 암호화폐 단속을 강화하는 「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」* 개정안 상정
 - * 英 정부는 지난 9월 암호화폐 자산의 압수·동결·몰수를 용이하게 하는 同法 도입
- EU, ISIS·알카에다 제재 연장 결정
 - 10.17 유럽연합(EU) 이사회는 테러단체인 ISIS·알카에다 및 이들과 관련된 개인, 그룹, 사업체 및 단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오는 '23년 10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
 - * 現 시행 중인 제재는 개인 13명, 단체 4개에 적용 / 제재 대상은 자산 동결 및 EU 여행이 금지되며 EU 소속 개인·단체는 제재 대상에게 경제적 지원이 금지
- 러, 용병 앞세워 프랑스 떠난 西아프리카 세력 확장
 - 10.17 언론은 러시아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억제를 위해 주둔했던 프랑스 철군 등 西아프리카 국가(말리·니제르 등)들의 안보 혼란을 틈타 자국 용병을 앞세워 同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중이라고 보도
 - * 일각에서는 프랑스가 후퇴하고 러시아가 장기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, 西아프리카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통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

미주

- 美 법원, 극우성향 음모론자에 "1조 3,800억 배상" 판결
 - 10.12 美 법원은 9.11테러·샌디훅초교 난사사건을 "정부조작" 또는 "총기 규제론자들의 사기극"이라는 음모론을 펼친 「알렉스 존스」에게 9억 6,500만달러(약 1조 3,800억원)를 배상토록 판결
 - * 샌디훅초교 희생자 유족과 FBI요원이 "존스의 가짜뉴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"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

○ **美, 알샤바브 지도자 테러리스트 지정**

- 10.17 美 국무부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소말리아 內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 지도자 5명을 ‘특별 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(SDGT)’로 지정했으며, 재무부도 동시에 同조직 금융촉진자 9명을 지정했다고 발표
- * 이번 조치들로 美 관할권에 속하는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거래가 금지

○ **美, ISIS 테러 활동 지원 캐나다인 20년형 선고**

- 10.17 美 연방법원은 최소 6명 이상의 美·캐나다인이 ISIS에 가담하는 것을 돕고, 시리아 內 납치·살해 등 “폭력적인 테러 행위”에 직접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캐나다 국적 남성(37세)에게 20년형 선고
- * 同인은 '17.3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체포, 美國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'19.6월 인도

아 · 태평양

○ **호주, 극단주의 조직의 ‘온라인 게임’ 활용 전술 경고**

- 10.16 호주 경찰은 최근 자국내 극단주의 조직이 ‘온라인 게임’을 활용, 청소년 대상 조직원 모집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, 「자녀의 극단주의 사상 노출시 가이드라인」* 자료 배포 및 지역사회 관심을 촉구
- * 同 자료는 부모가 자녀의 극단주의 사상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‘체크리스트’와 자녀의 극단주의 성향 확인시 부모의 ‘행동요령’ 등으로 구성

○ **호주, 돈세탁·범죄조직 연루 카지노에 900억 과징금 부과**

- 10.17 언론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(NSW) 카지노 위원회(NICC)가 돈세탁 제공·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방치한 혐의로 ‘스타 카지노’에 1억 호주달러의 벌금과 9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
- * 일각에서는 NICC의 이번 결정에 대해 면허 취소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지적

프랑스 '무함마드 만평' 소개 교사 참수테러

- '20.10.16 프랑스 이블린州에서 체첸계 러시아 국적 난민이 '수업시간에 무함마드 만평을 소개'한 중학교 교사 「사뫼엘 파티」를 길에서 참수
 - * 범인은 '02년 모스크바 출생후 '08년 부모와 함께 프랑스로 이주해 난민 지위 획득
- 조사결과, 범인 「압둘라흐 안조르프」(18세)는 한 학부모가 SNS에 “「파티」 교사가 이슬람 혐오를 조장한다”고 올린 글을 보고,
 - 중학생 2명에게 300유로를 주고 교사의 구체 신원을 특정한 후, 퇴근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참수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게재
 - * 범인은 SNS에 사진 게재 후 경찰에 추적되다 사살
 - 동명의 휴대전화기에서는 ISIS 깃발, 지하디스트 지지선언 사진 등 극단주의 관련 다수의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
- 이에, 佛 정부는, △이슬람혐오방지협회 등 2개 단체 해산 및 피해자를 비난한 이슬람 사원 6개월 폐쇄 조치, △30여건의 극단주의 관련 수사 착수 및 감시 테러 인물 중 범규 未준수자 231명 추방 추진 등 단행

< '샤를리 에브도'誌 무함마드 만평과 테러 >

< 샤를리 에브도誌 > 프랑스의 시사 주간지로 정치인 등에 대한 공격성 기사와 성역없는 풍자로 유명하며, 특히 무함마드에 대한 희화화 만평으로 이슬람권의 반발과 논란 야기

< 비판과 논란 > 과도한 풍자로 각종 비판을 받는 한편, “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”와 “종교 모독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”는 상반된 입장의 논란 유발



< 무함마드 풍자로 인한 테러 >

- △'15.1월 AQAP 지령을 받은 프랑스인 형제가 同社 사무실에서 총기를 난사해 12명 사망
- △'20.9월 알카에다 추종자가 同社 舊사옥 앞에서 흉기공격으로 언론인 2명 부상
- △'20.10월 체첸계 러시아 국적 난민이 무함마드 만평을 소재로 수업을 한 교사 참수
- △'20.10월 니스市 성당 인근 흉기테러로 3명 사망